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10월 2일 (제86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내 사랑 대한민국!

그대는 아는가?
 조국 잃은 자 비통함을
 이 설움~ 저 설움~
 크다 한들 조국 잃은 설움만 하라

압박과 설움의 36년
 아~ 아~ 그 설움 누가 알아
 선열들 울부짖음 통곡소리
 내 귓전 울리누나
 다시는 종의 명에 매지 말라고
 내 어찌 기도하지 않으랴

나의 조국 대한민국
 주님 보호하소서

朋友 이초석 목사

봉 우 컬럼

평화통일 기도성회

나는 기도원에서 건강을 챙기면서 지내던 중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봤다. 나는 그 영화들을 보면서 하염 없이 울었다. 그것은 나라 잃은 자의 설움이었고, 약소민족의 아픔이었기 때문이었다.

기도원으로 나를 찾아온 아흔의 한 권사

님은 내 손을 꼭 잡고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우리 젊은이들이 다 죽는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연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렇다. 이 나라는 더 이상 힘없는 나라이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이 땅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10월 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갖는다. 왜 우리 교단이 이 일에 앞장서는가 하면,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도 아닌 우

리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이상 충분한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자손에게 통장을 물려준들 무엇하겠는가. 국가가 없다면! 자녀들을 해외유학을 보내면 무엇하겠는가. 돌아올 나라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유산은 다름 아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된 조국이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 강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젊은이들의 꿈과 이상, 소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이 전쟁이다. 전쟁의 아픔이 얼

마나 큰 것인지 현재의 시리아 사태가 증명하지 않는다. '평화통일 기도성회'에 모두 다 적극적으로, 이유 불문하고 참여해야 한다.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평화통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니 그 분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자.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열강도 의지하지 말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평화통일을 이루자. 10월 3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꼭 만납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신15:3~11)

운택하길 원하면 남을 운택하게 하라

평생 돈이 떨어지지 않고, 손해 보지 않는 비결을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눅12:33). 남을 구제하면 내 주머니가 마르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에게 신학교 강의를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 그 목사가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가르치다보니 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을 가르치다보니 자기 실력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구제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운택하게 하는 자는 운택하여지리라”(잠 11:25).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이탈리아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식민지 백성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서 의인이라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보내셨고, 베드로를 통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초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짚어줍니다.

대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라는 여제자 역시 노인과 과부에게 많이 준 자입니다. 그런 그가 죽자 그 곳의 제자들이 급히 베드로를 청하여 그에게 받은 사랑을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를 위해 기도했고, 다비다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제를 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이렇듯 아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세계를 교구 삼을 수 있었던 초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를 무료로 전 세계에 준 것 때문입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미국으로 비디오테이프 10개를 보내려면 일인당 10만 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지요. 그런 식으로 세계 어디서든 신청만 하면 무료로 줬습니다. 다들 어찌려고 그러냐고 했지만, 어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드시피 하나님께서는 비

디오 선교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대역사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싫지요? 잘 살고 싶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제에 힘써보세요. 낚지 않는 주머니를 차보세요. 미국의 갑부 40명이 기부서약에 서명함으로써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습니다. 기부를 서약한 40명의 재산을 50%만 합산해도 최소 1,500억 달러(약 175조)에 달한다고 하고, 이러한 기부행진은 앞으로 더 진행될 듯합니다. 이는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등의 갑부들이 기부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들은 돈이 남아도니까 남도 생각하는 거죠.” 우

리 같은 사람은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

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나눌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재능기부도 있고요, 힘으로 도울 수 있는 것도 있고, 마음을 전하는 위로도 있습니다. 웃음을 주는 것,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당신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의무입니다.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신15:8),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신15:10).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면 어찌 됩니까?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구제도 의무사항인지만 하나님의 제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잘 보십시오. 이 장은 믿는 자 중에서 옳은 자와 그른 자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천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양은 주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주님의 오른

편에 설 양이냐? 주린 자에게 먹이고, 벗은 자에게 입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한 자입니다. 반대로 왼편에 설 염소는 주린 자를 보고도 못 본 체 하고, 벗은 자를 두고 자기만 잘 입은 자이며, 목마른 자들을 나 몰라라 하고 저만 목을 축인 자입니다. 곧 구제하지 않은 자가 염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서는 자리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구제하지 않는 자는 영벌,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왜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

25:45)

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

습니다. 험뿔고 굶주린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잠 19:17)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에 갑질하며, 무조건 원가를 깎는다든지 체불한다든지 하는 자들이요. 자기 배는 채우면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자들... 그런 자에게 주님의 왼편 자리는 따 놓은 당상일 겁니다. 그들은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나발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는 양털을 깎는 큰 잔치에 그의 우양을 늘 돌봐준 다윗이 먹을 것을 청하자 다윗을 무시하며 거절했습니다. 자기는 진수성찬으로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서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나발은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다윗에게 개죽음을 면치 못할 처지였으나 결국 자기의 수명을 재촉하여 며칠 앓다가 죽었습니다.

반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천

교회의 한 장로는 하청업체 사장들이 와서 밥을 산다고 오면 ‘여러분들 덕에 내가 돈을 번다’고 하면서 자기가 꼭 밥값을 낸다고 합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장로의 기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또 지방에 있는 한 기업가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봉사와 더불어 선교에 애쓰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자리에 있는 그 기업가는 주일이면 직접 승합차를 몰고 교인들을 모신답니다. 장담컨대 그 기업은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구제는 영적 보험이다 많이 들면 많이 받는다

오늘날 미국이 200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된 주요원인도,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펼친 구제사업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거의 미국이 주는 구제품을 받아봤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만큼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원수 같은 북한이지만, 그래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요즘 홍수로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롬12:20)고 했으니 우리는 마땅히, 분명히 그들에게 손을 펴서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평화통일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눅12:20)라고 하십니다. 그럼요,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갈 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갈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빈손 들고 갑니다.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고,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느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 분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그 분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1:27).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충심교회



총회장 이초석 목사

완전한 그리스도의 증인

공든 탑도 무너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도 꽤나 있었으니, 세례요한, 동방박사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 마르다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등 무수히 많았고, 심지어는 귀신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의 모친 마리아보다 더 큰 증인이 어디 있을까? 마리아아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니 제 뱃속으로 직접 낳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가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다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예수를 만나러 가다가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푸대접을 받았을 때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더욱이 딱한 것은 예수께서 잡히시어 대제사장과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으시는 데도 아들의 구명을 위해 한마디 변호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죄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칭함으로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 참람한 말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 무엇이랴 변호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장장 6시간씩이나 피를 쏟으며 죽는데도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감추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살만치 산과 부가 입 다물고 제 자식이 죽도록 내버려

두었겠는가? 딴 사람들이야 뭐라 하던 마리아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었기에 변호할 수 없었던 것이니, 마리아아말로 당시로서는 최고의 증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증거해주기 원치 않고 성령이 증거해주시기를 원하셨으니, 귀신이 증거하고 베드로가 증거하고 병고침 받은 자들이 증거할 수 있었을지라도 “잠잠하라.”,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이다. 심지어는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에게도 성령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셨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나심, 죽으심, 부활승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昇貴)에 대한 최고의 증인이시다. 왜냐하면 이런 점진과정이 없이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리아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증거만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죽음, 부활, 승천, 승귀까지의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리아도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문도들 중에 포함되어 우리처럼 완전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요20:21~22).

신기류 목사

얼마 전 해외여행을 다녀왔었다. 관광 상품을 선택해야 했는데, 인터넷을 찾아본 끝에 블로그와 카페에 후기가 좋았던 현지 여행사를 선택하고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에 여정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행 하나를 취소했었다. 그런데 현지 여행사 사장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결국 현지로 가서 여행하고 귀국해야 하는 날이 다가왔다. 그래도 환불 해주지 않았기에 여행사 사무실에서 버티며 환불해달라고 하여 마침내 환불을 받았다. 환불 받기까지 마음 고생하였지만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을 뻔한 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 귀중한 경험이었다. 귀국하고 나서 내가 겪은 그 여행사에 대한 경험을 인터넷에 공유하였더니 사람들이 공감해주면서 그 여행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사람들의 빠른 대답 때문에 입소문이라는 것이 참 무섭고 좋은 평판도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느꼈다.

공든 탑도 계속 공들이지 않으면 무너진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는 어려워도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16:18). ‘되였다’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시 넘어지고 말 것이다. 웃시아 왕은 여호와와의 보살피심으로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겼지만,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해지자 교만해졌다. 스스로 제사장이나 행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 징계를 받아 그 자리에서 문둥병에 걸렸다. 지금 한때 잘나간다고 교만해져서 지금의 변영에 이르게 된 원리 원칙을 무시한다면 웃시아처럼 쓸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는 옛 속담처럼 겸손하게 행동하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10:12).

김성일

cre8tor@naver.com



:: 사랑&행복 ::

고난을 대하는 자세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지킨다

출발한지 1년여만의 난파, 1년 7개월간의 목숨을 건 사투, 그리고 남극횡단 실패. 20세기 전 세계 크고 작은 리더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불후의 명탐험가로 인정받는 영국의 어니스트 샐클턴 경과 그가 이끈 탐험대의 실상이다. 샐클턴의 탐험대는 아문센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남극점을 정복한 스코트 탐험대가 낭패감과 연약한 의지에 굴복하여 귀환 길에 전원이 목숨을 잃은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그들은 조만간 구조대를 만나 구조선에 오를 수 있을 거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가족과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꿈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며 매일 매일을 이겼다. 그리고는 마침내 27명의 대원이 전원 무사 귀환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바로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온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겪는다. 그런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불평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그렇기에 비범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출애굽 하더니 광야에서는 ‘이것 없다, 이게 불편하다’ 불평하다가 약속받은 가나안 땅은 밭아보지도 못한 채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

들처럼 말이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누구는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도 예수를 만나고는 자신을 미스 헤븐(Ms. Heaven)이라며 자랑스러워하고, 또 어떤 이는 뇌성마비인데도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노라고 당당히 노래하며 기뻐한다. 알고 보면 고난은 인생과 영혼에 있어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다. 베토벤이 완전히 귀가 먹은 시기에 완성한 ‘합창 교향곡’처럼 말이다. 그는 육체와 환경에서 오는 고난을 깊고 깊은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켰다. 다투고 일생을 쫓겨 다니다시피 했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함을 깨닫고 오히려 기뻐했다. 그렇다. 고난의 목적은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요, 주의 율례를 알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니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 불평 불만하지 말자. 고난을 내가 도약하고 깊어질 기회로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환경 탓, 사람 탓만 하다가 삼류인생으로 전락할 것인가!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에 국내외가 다시 술렁입니다. 최악의 홍수에도 피해복구는 국제사회에 손을 벌린 채, 정작 지도자는 핵실험성공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한심하고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론상 양국 간 핵무기 보유가 동일하게 대립되어 서로 핵무기의 사용을 주저할 때 핵사용이 억지됩니다. 현재 핵보유 지위가 없는 우리나라는 동맹국인 미국을 통해 핵우산을 제공받아 북핵을 억지하고 있지만,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북한은 강력한 한방인 핵개발에 사력을 다하여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고 우방인 미국은 연말대선을 앞두고 고립주의, 보호주의 노선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미국이 이례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미국이 개입해야 하는지 여론 조사한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반도에 개입 말라는 의견이 과반수였고, 한반도 전쟁 시 미국 무력을 사용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무려 49%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미국이 우리의 혈맹이고, 협정에 따라 도움을 주겠지만,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국제사회의 현실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에 마냥 미국에 의존할 수만은 없습니다. 북핵문제는 우리의 영토와 삶이 위협받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북한을 도대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마다 우리 교단을 시의 적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번 기도성회가 북한의 핵실험발표에 앞서 계획되어 우리를 기도로 준비시킨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대승을 거두었을 때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이들이 적보다 뛰어난 전술과 전략을 가져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엔 미약했지만, 하나님을 앞세웠기에 그들은 강했고 승리했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번 기도성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통일을 주실 겁니다. 우리 교단을 사용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고은

khjc77@hanmail.net

하나님의 흔적

10년 전, 제가 중국에 머무르며 공부할 때 일입니다. 중국에 가지고 간 경비를 모두 소진한 저는 중국에 남아야 할지 아니면 한국에 다시 돌아와야 할지 결정해야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한국에 가자니 비행기 표 값이 없고, 중국에 남자니 당장 다음 달 집세는 물론 제가 눈 여겨둔 중국소재의 직장에도 들어가려고 치른 중국어능력시험 결과 역시 아직 발표되지 않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

다. 고 축복하시기 위함이며,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체력까지 함께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솟아났습니다. 그렇게 3일 금식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금식 내내 몸이 아픈 것도 없었을 뿐더러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영적인 상쾌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오빠에게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침에 불현듯 네가 중국에 더 머무르려면 경비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돈을 보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제가 중국에 머무르게 되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한 액수가 정확히 들어있었습니다. 게다가 기다리던 중국어능력시험 성적도 발표되었는데 예상했던 성적 이상이 나왔고, 그 성적표를 첨부하여 원하던 북경소재 직장에도 지원하여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그 사건이 하나님과 저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자 제 삶

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흔적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미쁘심이 저의 심령에 더욱 깊게 뿌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이번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선포될 때 역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또다시 귀한 흔적을 남겨주시려 손 내미신 것은 아닐까?'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총성 없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날, 그것이 사람의 모략과 정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임을 확증케 하시고, 그것을 먼 훗날 천국에서 함께 추억하시려 하심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남겨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또 하나의 흔적을 기대하며, 성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하인명
renming@daum.net

감사

“왜! 감사하지 않을까? 당연한 사실들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돌리고 다리가 돌이다.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자기 발로 갈 수 있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내 손으로 잡을 수도 있다.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내 목소리가 내 목에서 나온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일인데 뭐...’ 하며 웃어넘긴다. 하루 세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고 아침이 되면 눈을 뜬다. 또 때론 울기도 하고 때론 웃는 일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평범한 일상에 대해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뿐이었다.” 어느 의사가 적은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건강에 대한 고마움에 감사하고, 손가락을 하나라도 잃어본 사람만이 남아있는 손가락에 대한 소중함을 절감하고 때늦은 감사를 하게 되지요.

한 원로 목사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감기에 안 걸린답니다. 암세포가 어찌나 센지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잡아먹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기에 걸렸다는 것은 암세포가 내 몸 속에 없다는 증거니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는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보다 지금까지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아닐까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실패까지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시50:23). 어느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습관, 감사의 체질, 감사의 성품, 감사의 인격이 있어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치아 하나가 3,400만원?

20년이 넘는 일이다. 친한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한날 제게 사랑니를 뽑으라고 권하셨다. 최신지견에 따르면 사랑니는 충치를 잘 유발하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없애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멀쩡한 사랑니 2개를 과감히 뽑았다. 그런데 수개월 지나 사랑니 뽑은 자리가 이상하게 아프고 느낌이 좋지 않아 뽑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의 가치를 더욱 느끼며 그때의 일이 후회된다. “이 치아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니까 뽑아버리죠?” “치아 뿌리가 썩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주위 뼈까지 녹아내릴 수 있으니 얼른 뽑는 게 좋겠습니다.” 치과에 갔는데 의사가 발치를 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처음엔

주저하겠지만 ‘전문가의 의견이니 따르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하며 치아를 뽑을 수도 있다. 하지만 치과 의사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 발치를 곧바로 시행하지 말고 다른 치과에도 가서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 치아는 오복 중 하나인데 쉽게 뽑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건강한 치아 하나의 경제적 가치가 약 3만 달러(약 3,400만원)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입 안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것이다. 그 다이아몬드를 쉽게 뽑아버리겠는가? 도쿄치과대학 교수 기노 코지 박사와 치주질환을 치료하는 ‘페리오 클리닉’의 사이토 히로시 원장은 ‘치아 절대로 뽑지 마라’는 책을 집필했다. 기노 박사와 사이토 원장은 치아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쉽게 뽑

아버리고 충치가 심하지 않은 환자에게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권하는 치과 의사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를 완벽히 대체하지는 못한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어금니 하나 당 50~60kg의 힘이 가해진다. 우리가 하루 씹는 횟수가 약 1,000번이면 1년에 씹는 횟수는 36만 5,000번이다. 치아는 잘 관리하면 내구성이 좋아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충치나 치주질환에 걸렸다고 자꾸 치아를 뽑으면 다른 치아들에 부담이 커져 나머지 치아도 차례로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장수하려면 치아가 잘 보존되어야 한다. 자연치아를 지키는 지름길은 충치와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케일링을 하고 올바른 양치질을 익혀 실천하자.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